

12가지 인연을 따라 흐르는 운명의 비밀

- 십이인연중 첫 번째는 無明이다.
- 無明은 궁극의 이치를 모르는 것이다. 無常의 이치를 모르고 輪廻의 이치를 모르고 空의 이치를 모른다. 이것은 사물의 본래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렷하게 볼 수 없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妄想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無明(〔 불 〕 잘못된 의견이나 집착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모든 번뇌의 근원이 됨》)이다.
- 모든 족쇄를 버리면 속세의 강을 건너 생사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속세의 삶이 번뇌와 투쟁,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이 무명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우리의 유한한 인식으로 무한한 신비를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 무명 속에 사는 삶이란 물결이 거센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시시때때로 휩쓸려 허우적거리는 것과 같다. 이 삶을 평온하게 보내고 속세의 강을 건너고 싶다면 의지할 것은 오로지 믿음뿐이다.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해탈에 대한 믿음이다.
- 십이인연중 두 번째는 行이다.
- 무명으로 인해 집착이 생기는데, 집착에 빠져 행동하는 것을 불교에서 業을 짓는다고 한다. 질투와 분노 때문에 마음속으로 남의 불운을 바라는 것은 意業이고, 남에게 악담을 하는 것은 口業이며, 직접 남을 때려서 상해를 가하는 것을 身業이라고 한다.
- 어째서 業을 지을까? 無明의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無我的 이치를 모르고 '나'에만 집착해 번뇌가 끊이지 않고,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른 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집착해 끝없이 고통을 받는다.
- 십이인연중 세 번째는 識이다.
- 무명과 행은 과거의 헛된 믿음으로 인한 행위가 갖가지 업을 지음을 설명한다. 그런 뒤에 그 업이 현재에 다다르면 識, 즉 幻生の 식을 일으킨다. 식은 분별심을 의미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환생하기 직전 그 순간의 마음이다.